

Meritz 통신서비스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정지수
02. 6098-6681
jisoo.jeong@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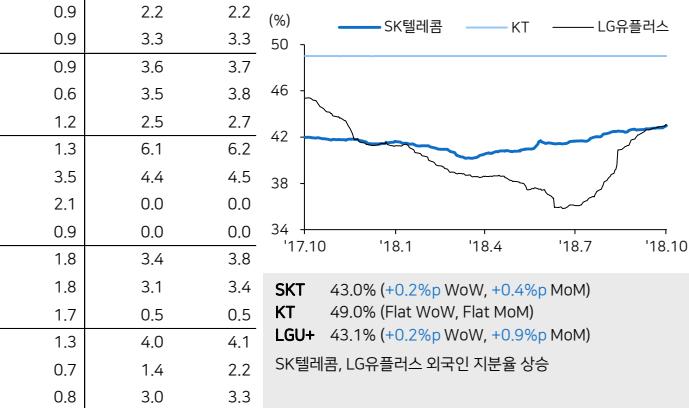
2018.10.22

1

주가 현황

	수익률(%)				P/E(x)		P/B(x)		배당수익률(%)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
	1W	1M	3M	6M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KOSPI	-0.3	-7.8	-5.8	-12.9	8.7	8.7	0.9	0.9	2.2	2.2	(%)
통신업종	4.3	3.5	15.8	23.1	8.5	8.5	0.9	0.9	3.3	3.3	
SK텔레콤	4.6	4.1	18.0	25.6	7.1	7.4	1.0	0.9	3.6	3.7	
KT	3.8	0.7	8.7	10.9	10.8	10.6	0.6	0.6	3.5	3.8	
LG유플러스	3.9	2.6	18.3	44.8	13.6	12.5	1.2	1.2	2.5	2.7	
AT&T	1.9	-1.7	5.7	-5.2	9.3	9.1	1.3	1.3	6.1	6.2	
Verizon	2.2	1.8	8.5	14.6	11.8	11.6	4.1	3.5	4.4	4.5	
T-Mobile	2.0	0.9	17.7	10.6	21.4	17.5	2.4	2.1	0.0	0.0	
Sprint	0.8	0.3	18.3	7.7	33.3	N/A	1.0	0.9	0.0	0.0	
NTT Docomo	0.0	-4.0	1.5	5.5	14.9	14.8	1.8	1.8	3.4	3.8	
KDDI	1.7	-2.4	-5.5	4.8	12.7	11.5	1.9	1.8	3.1	3.4	
Softbank	-4.5	-12.4	-3.3	15.1	9.6	12.9	2.0	1.7	0.5	0.5	
China Mobile	-0.8	1.2	13.6	6.5	12.2	12.0	1.4	1.3	4.0	4.1	
China Unicom	-1.4	-9.0	-7.2	-16.4	28.1	18.1	0.7	0.7	1.4	2.2	
China Telecom	-3.0	1.8	8.1	6.6	13.8	12.7	0.8	0.8	3.0	3.3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2

업종 코멘트

전주 동향

10월 셋째주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KOSPI 대비 +4.6%p 수익률을 기록하며 Outperform 국내 증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방어주인 통신주에 투자자들의 관심 집중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화웨이의 5G 통신 장비를 채택한 것으로 파악 국내 기관은 KT 순매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순매도, 외국인은 SK텔레콤, LG유플러스 순매수

금주 전망

금주는 26일 진행되는 과방위 종합감사 일정에 주목 이번 국정감사에서 통신업종 관련 주요 이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분리공시 도입 여부 우려했던 보편요금제 도입 이슈가 언급되지 않으면서 통신비 인하 관련 규제 리스크 완화 투자자들의 관심은 실적으로 이동 중이며, 시장 경쟁 강화로 통신 3사 3Q18 실적은 다소 부진할 전망

★ 통신업종 캘린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과방위 종합감사	27

3

주간 뉴스

▶ LG유플, 화웨이 5G 통신장비 쓴다

(매일경제)

-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KT는 결국 화웨이 장비를 쓰지 않고, LG유플러스는 화웨이 장비를 도입
- LG U+는 보안 우려는 문제없다고 결론. 정부 역시 해당 이슈는 통신사들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
- LG유플러스는 화웨이와 노키아, 삼성전자 장비를 채택. 에릭슨 장비는 쓰지 않는 쪽이 유력
 - ⇒ 장비사 선정은 당초 예상 시기보다 다소 늦게 결정. 빠른 계약으로 상용화에는 차질 없을 예정
 - ⇒ 장비 선정을 고심하던 KT와 LG유플러스는 따로 사업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지는 않을 계획

▶ 1.7조 재난망 사업, KT와 SKT가 옷았다

(ZDNet Korea)

- KT가 재난망 본사업의 A, B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C사업 우선협상대상자는 SK텔레콤
- 18일 조달청에 따르면 A, B, C 각각의 발주 규모는 4천억원, 3천 120억원, 1천 900억원 가량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본계약은 발주처와의 기술 협상을 거치고 약 20일 후 체결될 예정
 - ⇒ KT와 SKT는 통신 장비 국산화를 주 장점으로 제시. 향후 5G 관련 마케팅에 힘이 실릴 예정
 - ⇒ 이번이 없는 한 우선협상대상자가 본사업 역시 가져갈 것으로 전망. 총 발주 규모는 1.7조원

▶ 삼성전자, 네트워크 분석 전문업체 지랩스 인수...5G 경쟁력 강화

(ZDNet Korea)

- 삼성전자는 스페인 네트워크 분석 기업 지랩스(Zhilabs)의 지분을 100% 인수했다고 17일 발표
- 지랩스는 통신 네트워크의 상태와 성능, 데이터 트래픽 등을 서비스별로 분석해 제공하는 업체
- 삼성전자는 5G시대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위해 네트워크 품질 측정/분석 능력이 필요하다고 설명
 - ⇒ 삼성전자는 지랩스와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통신사들과 5G 인프라 확장에 적극 나설 계획
 - ⇒ 인수 금액은 수백억원대. 이번 인수를 통해 삼성전자의 5G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의지 재확인

▶ 또 불거진 완전자급제, 벌써부터 파열음

(서울경제)

- 10일 과방위 국정감사 이후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상황
- SK텔레콤 전국대리점협의회가 17일부터 이를 간 판매를 거부하는 등 유통업계는 강력 반발
- 단말기 구입 비용이 얼마나 줄지가 주요 쟁점. 외국 사례 고려 시 단말기 가격 22% 하락 예상
 - ⇒ 이통사들은 긍정적인 입장. 현재 마케팅 비용의 절반 가량인 4조원 가량을 판매장려금에 사용
 - ⇒ 하지만 25% 선택약정할인제도의 유지 여부 등에 따라 자급제가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전망

▶ SKT-삼성전자, 5G 한 발 더...퍼스트콜 성공

(디지털데일리)

- SK텔레콤은 삼성전자와 5G 테스트베드에서 5G 상용장비로 '퍼스트콜'에 성공했다고 15일 발표
- 퍼스트콜은 상용 서비스와 동일한 환경에서 데이터로 정상 송수신되는지 확인하는 절차
- 이번 시험은 실제 현장에 설치할 수준의 장비 사용. 남은 과제는 다양한 환경에서 품질 최적화
 - ⇒ SK텔레콤은 5G 상용화 준비 과정에서 글로벌 통신사보다 수개월 앞서 있다고 설명
 - ⇒ 2019년 3월 5G 모바일 상용화를 위한 기술적인 준비는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 LG U+, CJ헬로 인수 추진 재개

(the bell)

-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멈췄던 CJ헬로 인수 추진을 다시 진행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논의
- LG유플러스는 당초 올해 초 CJ헬로 인수를 추진했으나 CEO교체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제동
- 그러나 시장 포화로 IPTV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결단
 - ⇒ 잊은 관련 언론 보도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는 어떠한 공식적 입장도 발표하지 않은 상황
 - ⇒ 한편, KT그룹의 딜라이브 인수합병 반대 시위가 일어나는 등 SKT, KT의 움직임에도 이목 집중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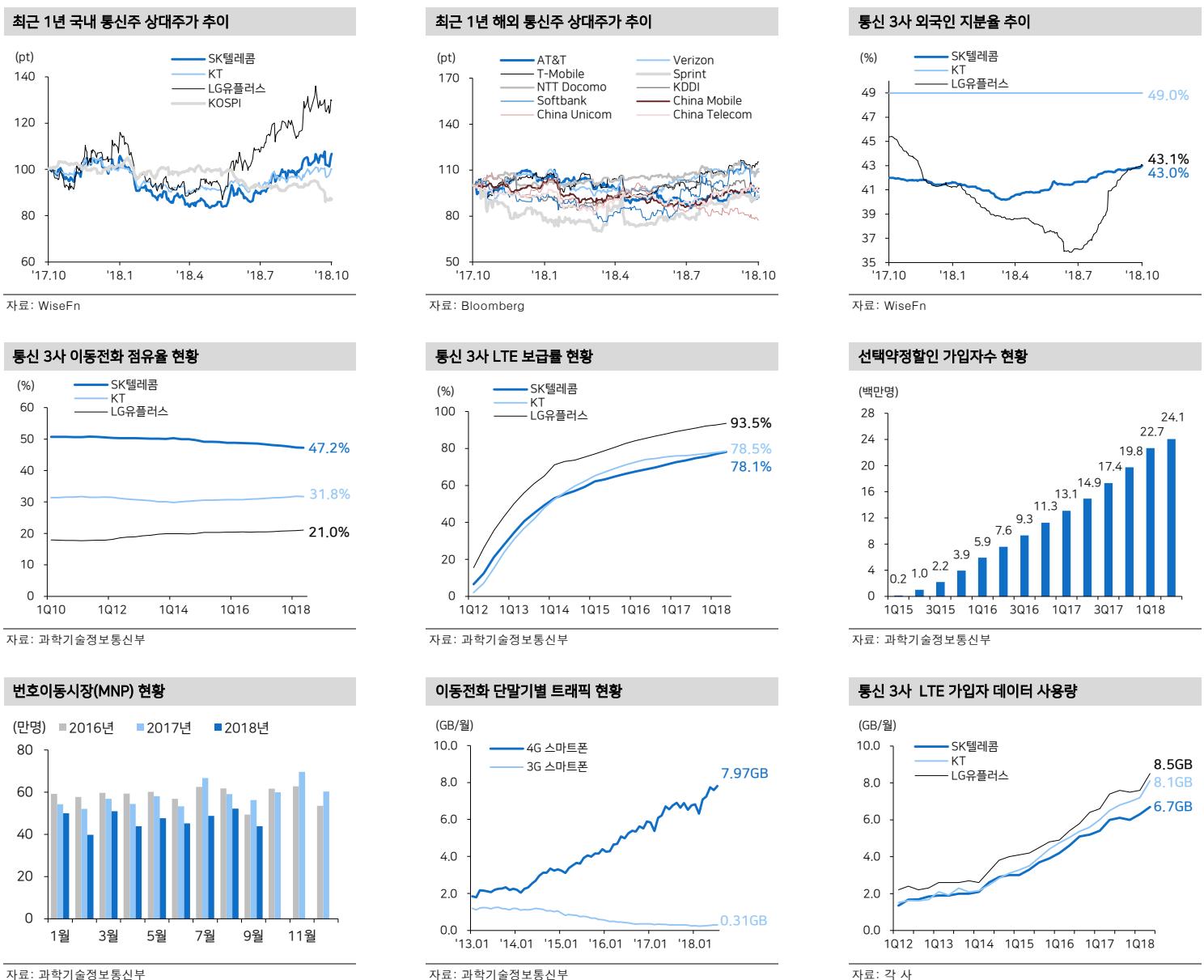
주요 지표

(십억달러)	종가 (통화)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BITDA		EV/EBITDA (배)		ROE (%)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한국	SK텔레콤	282,500	20.2	15.0	15.4	1.2	1.3	2.8	2.7	4.1	4.2	6.0	5.8	16.3	13.7
	KT	29,900	6.9	20.8	21.2	1.2	1.2	0.6	0.7	4.2	4.2	2.6	2.6	5.9	5.7
	LG유플러스	17,450	6.7	10.9	11.1	0.8	0.8	0.5	0.5	2.2	2.4	4.0	3.8	9.9	9.7
미국	AT&T	32.9	238.7	172.8	186.0	32.1	36.4	23.8	26.4	56.1	60.9	7.4	6.8	14.5	14.9
	Verizon	54.9	226.8	130.8	131.9	29.4	31.1	18.7	19.8	47.4	48.6	7.2	7.0	38.7	33.3
	T-Mobile	69.8	59.1	43.0	45.3	5.3	5.9	2.7	3.3	11.9	12.8	7.5	7.0	11.7	12.7
	Sprint	6.5	26.3	32.4	32.8	2.6	2.3	5.5	-0.0	11.1	12.3	5.3	4.8	14.1	0.3
일본	NTT Docomo	2,913	98.0	44.2	43.2	9.1	9.0	6.7	6.3	13.9	13.7	7.3	7.0	12.6	12.2
	KDDI	2,982	67.1	45.8	46.1	9.0	9.2	5.3	5.5	14.1	14.2	5.8	5.6	15.6	15.8
	Softbank	9,530	93.3	83.8	84.2	11.6	12.6	9.9	6.7	25.0	25.3	9.7	9.4	22.0	13.0
중국	China Mobile	77.9	203.3	108.5	111.8	17.8	17.9	16.7	17.0	40.4	41.6	3.4	3.3	11.4	11.0
	China Unicom	8.7	33.9	41.0	43.3	1.4	2.3	1.2	1.9	12.6	13.4	2.8	2.6	2.6	4.1
	China Telecom	3.9	40.2	55.2	57.4	4.2	4.6	2.9	3.2	15.3	15.8	3.2	3.1	6.1	6.4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5

주요 차트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10월 2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A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10월 2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정지수)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